



제25회 용인대 총장기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 단체전에서 우승한 서석중 검도부(왼쪽)와 3위를 차지한 서석고 검도부.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 서석중·고 검도 전국대회 두각

용인대 총장기 중·고 대회 단체전 우승...서석고 동메달

서석중·고등학교 검도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검도명문의 기량을 과시했다.

18일 광주시체육회와 광주시검도회에 따르면 서석중(교장 나금택)은 최근 충남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제25회 용인대 총장기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 단체전에서 우승했다.

서석중은 단체전(5인조) 예선부터 경남 가야중, 제주 저정중, 강원 원통중을 차례로 완파,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강호 전북 익산중을 2-1로 제압, 결승에 진출했다.

서석중은 결승에서 전남 해룡중을 3-2로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다. 2012년 제15회 같은 대회 우승 이후 10년 만에 정상 탈환의 기쁨도 누렸다.

서석중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는 해룡중을 만나 처음에는 고전했다. 그러나 특유의 근성과 집중력으로 경기 중반 이후 흐름을 뒤집었다. 서규원(중견)과 강현우(부장)가 잇따라 승리를 잡았고, 이정환(주장)이 머리치기에 성공하며 최종 3-2로 우승했다. 이들 3학년은 비롯해 김기훈·정우민·오승준·채희준(이상 2년)도 우승에 힘을 보탰다.

서석고도 메달을 추가했다. 서석고는 예선부터 8강까지 좋은 경기력으로 흐름을 이어가다 준결승에서 인천고를 만나 1-5로 패해 어렵게 동메달을 획득했다.

서석고 검도부는 이종한·송태준·임지성·김도엽(이상 3년), 임우찬·김민수·이인호(2년), 이운성·박기주(1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은 "검도 명문의 진가를 보여준 서석중고등학교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매 대회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2022 광주국제태권도아카데미 참가자들이 화합을 다짐하고 있다.

〈조선대 제공〉

국내외 태권도 수련생 한자리에

조선대 광주국제태권도아카데미 개막...문화체험 행사도

국내외 태권도 수련생이 참가하는 '2022 광주국제태권도아카데미'가 17일 문을 열었다.

광주시태권도협회가 주최하고 조선대학교와 광주국제태권도아카데미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이날 개막해 24일까지 진행된다. 행사에는 해외 및 국내 태권도 수련생이 참여해 품새와 겨루기, 시범 등을 배운다. 세계 각국 태권도 수련생이 한자리에 모여 경험을 교류하고 화합을 다지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행사가간(23일~24일) 광주 빛고를 체육관에서 광주 오픈국제태권도대회가 열리며, 아카데미 프로그램에서 배운 태권도 기술을 국내태권도 수련생들과 실제 대회를 통해 적용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은 태권도 기본동작, 품새, 겨루기, 시범 등 기술연마 외에도 테마 트레이닝으로 요가, 풍물놀이 등 풍부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조선대 태권도학과 학생들과 해외 태권도 수련생들의 상호교류를 위해서다.

참가자들은 22일문화관광을 통한 한국문화체험 시간도 갖는다.

이제행 광주국제태권도아카데미 조직위원장 겸 조선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는 "아카데미를 통해 태권도의 우수성을 세계 각국에 알리고 참가자들의 태권도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계 각국의 상호교류 활성화로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금호중 남녀 배드민턴 동반 우승 금호중학교(교장 박선남) 배드민턴 선수들이 제15회 광주시교육감배 스포츠클럽대회 남녀 단체전에서 동반 우승으로 꺾고 우승했다. 여자 선수들도 일신중을 2-0으로 누르고 정상을 차지했다. 리그전으로 치러진 경기에서 금호중 남녀선수들은 예선 전승으로 결승에 올랐다. 이들은 오는 11월 경남 밀양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광주 대표로 출전한다. 〈금호중학교 제공〉

프리저, 세계 육상 100m 5번째 우승

10초67 '대회신'

'마미 로켓'(Mommy rocket) 셸리 앤 프리저-프라이스(36·자메이카)가 통산 5번째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100m 금메달을 수확했다.

프리저-프라이스는 18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2022 세계육상선수권 여자 100m 결선에서 10초67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10초67은 매리언 존스(미국)가 1999년 세비아

대회에서 작성한 10초70을 0.03초 앞당긴 대회 신기록이다.

세리카 잭슨(28)이 개인 최고인 10초73으로 2위, 올림픽 2연패(2016년 리우·2021년 도쿄)를 달성한 일레인 톰프슨(30·이상 자메이카)이 10초81로 3위를 차지했다.

자메이카는 세계육상선수권 여자 100m 사상 최초로 1~3위를 독식했다.

지난해 열린 도쿄올림픽에서는 톰프슨이 1위(10초61), 프리저-프라이스가 2위(10초74), 잭

슨이 3위(10초76)에 올랐다.

이로써 자메이카 육상 여자 단거리 '빅3'는 2년 연속 메이저 대회 여자 100m 시상대를 독점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유럽의 자존심' 디나 아서-스미스(27·영국)는 10초83의 영국 신기록을 세웠지만, 자메이카 빅3에 이은 4위에 그쳐 시상대에 서지 못했다.

이번 세계선수권에서 가장 빠르게 달린 선수는 프리저-프라이스였다.

자메이카를 상징하는 노란색과 녹색으로 머리를 물들인 프리저-프라이스는 50m 지점부터 선두로 올라섰고, 결승선도 가장 먼저 통과했다.

/연합뉴스

'3구 황제' 쿠드롱 방심했나

프로당구 투어 '인천 당구장 사장님' 노병찬에 덜미

'황제' 프레데리크 쿠드롱(벨기에·웬컴저축은행)이 프로당구협회(PBA) 투어에서 '인천 당구장 사장님' 노병찬(40)에게 덜미를 잡혀 탈락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쿠드롱은 17일 밤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서 노병찬과 치른 하나카드 PBA-LPBA 챔피언십 PBA 64강 경기에서 4세트까지 2-2로 팽팽하게 맞서다가 승부차기에서 0-1로 패했다.

경기 초반부터 쿠드롱은 잔 실수가 잦았다. 첫 세트 2이닝에서 6점을 낸 뒤 7이닝 동안 공타를 범했고, 노병찬이 빈틈을 놓치지 않고 차곡차곡 점수를 쌓으면서 결국 쿠드롱은 1세트를 6-15로 내줬다.

쿠드롱은 2세트와 3세트를 따내며 집중력을 되찾는 듯했지만, 4세트에는 14-11로 리드를 잡고도 경기를 끝내지 못한 가운데 노병찬이 연속 4득점을 내면서 결국 승패는 승부차기에서 가리게 됐다.

승부차기에서 쿠드롱은 3뱅크로 조구를 공략했지만 빗나갔고, 노병찬이 침착하게 뒤돌리기에 성공하며 '황제'를 잡는 이번의 주인공이 됐다.

인천시 연수구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며 선수로도 활동 중인 노병찬은 "어떤 말로도 형용하기 어려울 만큼 벅치다"며 "평소 팬이자 우상이던 쿠드롱 선수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말했다.



다른 64강전에서는 필리포스 카시도코스타(그리스·하나카드)를 비롯해 다비드 사파타(스페인·블루원리조트) 강동국(SK렌터카) 등이 32강에 진출했다.

반면 쿠드롱을 비롯해 서현민(웬컴저축은행), 마민관(베트남·NH농협카드), 에디 레벤스(벨기에·SK렌터카) 등은 고배를 마셨다. /연합뉴스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탐간: 매버릭
2관	헤어질 결심, 범죄도시 2
3관	토르: 러브 앤 썬더
4관	명탐정 코난: 할로윈의 신부, 더 킬러: 죽어도 되는 아이
5관	탐간: 매버릭, 범죄도시 2
6관	토르: 러브 앤 썬더
9관	탐간: 매버릭, 브로커, 더 킬러: 죽어도 되는 아이
7관	씨네캐슬 명탐정 코난: 할로윈의 신부, 더 킬러: 죽어도 되는 아이, 마녀(魔女) Part2. The Other One
8관	씨네캐슬 탐간: 매버릭, 헤어질 결심, 엘비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130회 정기연주회 **신나는 국악여행**

일시 : 2022.07.28.(목)~30.(토)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415-5403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7.01.(금)~31.(일)

매주 화요일 ~ 일요일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